

“「인터넷 유토피아」 실천은 우리의 몫”

중학생과 홈페이지 ‘좀비’

자살사이트가 세상에 충격을 던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중학생이 동생을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학생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즐겨했다고 한다. 사이버중독, 가상과 현실의 혼돈, 언론은 목소리를 높여 인터넷을 개탄했다. 그런데 그가 즐겨했던 온라인 게임은 문화부장관상을 받을 만큼 폭력성의 수위가 낮은 게임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야식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후 ‘좀비’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여기 글 오늘 다 읽어봤다. 동생 죽일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냥 이 아이는 좀 지쳐 버렸구나, 현실이 맘에 안 드니까 도피해버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좀비는 어쩌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걸까. 처음 보도를 봤을 땐 거부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

고소당한 ‘소리바다’

‘소리바다’가 고소를 당했다. MP3

음악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리바다에는 없는 노래가 없다. 그런데 소리바다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가 있는 음악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이고, 소리바다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을 위와 같은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만일 이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하더라도,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인터넷을 발전시킨 ‘정보공유의 정신’과 종래의 ‘지적재산권 법제’가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혹자는 디지털시대, 지식정보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적소유권 법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관련된 사례 한가지 - 과거 미국에서 VCR이 처음 나왔을 때도 VCR이 영상저작물을 무단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물론 비디오프레이어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천당과 지옥의 두 갈래 길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지구촌 반대편 작은 도시에 어떤 피자가게가 맛있는지도 인터넷으로는 알아낼 수 있다. 파티에서 어떤 음악회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고, 예매도 할 수 있다. 시와 음악, 영화와 사진, 뉴스, 토론, 각종 논문도 그 곳에 있다. 요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웬만한 숙제를 인터넷으로 다 처리한다. 고궁의 사진도 구하고, 환경오염에 관한 자료도 찾아내고, 역사에 관한 정보도 인터넷으로 찾아낸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쓰레기 같은 정보도 많다. 음란사이트가 인터넷 대중화의 동력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사방에 음란사이트가 널려 있다. 엽기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구역질나고,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곳들도 있다. 그래서 자살사이트를 통해 자살방법을 배우고, 폭탄제조사이트를 통해 폭탄을 만든 사건도 생겨났다.

인터넷은 정보의 소비자를 생산자로 만들어준다. 정보를 소비하는 수동적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다.

이 인터넷은 시악 음악, 영화, 뉴스, 학술논문 등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음란, 혐기, 자살사이트 등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많다.

이처럼 인터넷은 천당과 지옥, 유토피아와 디스유토피아를 오르내린다.

이러한 인터넷을 우리 시대를 풍요롭게 하고

열린 시대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林成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인 지위에 머물러 있던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주체가 된다. 지식과 정보를 소수가 생산하고 독점하는 구조가 점점 해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 홈페이지, 심지어는 개인 방송국에서 각종 다양한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전파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에선 독자가 모두 기자가 된다. 명칭하게 구경만 할 것을 요구받았던 시청자들이 인터넷에선 PD가 되고, DJ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제공하고, 전파한다.

그러나, 익명성에 몸을 숨긴 사이버 폭력과 무책임한 정보의 양산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릇된 정보와 무분별한 정보의 유통으로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느 연예인의 숨기고 싶은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지고, 연대를 활성화시킨다. 외국에 있는 친구와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 받고, 인터넷전화를 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같은 관심과 지향 때문에 인터넷으로 모이고, 인터넷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사람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놀이터에선 어린이들이 자취를 감추고, 대신 컴퓨터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채팅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린 소녀를 유혹하는 사람들, 탈선을 하고 싶어하는 유부남·유부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인터넷은 원조교제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상하고, 건전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설 자리가 없다.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토론이 활성화되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보다 용이하게 실현된다. 시민운동도 커다란 힘을 얻게 된다. 멕시코의 농민혁명군 마르코스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대의를 세계에 전파하고 지구촌의 지지를 끌어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맹목적 세계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조직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들은 이제 안티사이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게시판에 올라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인터넷은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 인터넷을 통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보 부자와 정보 거지라는 말도 생겨났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로부터 더욱 소외되고 불평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인터넷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두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천당과 지옥,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오르내린다. 그러나, 인터넷은 가치중립적이다. 인터넷 자체에는 어떤 가치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인터넷으로 형성된 사이버스페이스도 결국 현실의 투영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가치중립적인 인터넷을 가치지향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제도, 문화의 몫이다. 인터넷이 지식정보시대를 풍요롭게 하고, 열린 사회에 도움이 되며, 네트워크와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 투명한 사회로 진보하기 위한 도구가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몫인 것이다. ㉞